

하루를 시작하며



좌 정 목 시인·문학평론가

제주도의 올 여름은 몹시도 더웠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이 넘어가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은 더욱 심해졌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까닭이 없는 관광객들은 제주의 해수욕장을 찾아 그동안의 휴가를 즐겼다고도 했다. 8월 말부터 시작된 가을장마는 백구를 보내고도 제주도의 풍경 위에서 비구름으로 머물고 있다. 대신은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국은 제주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것만 같다. 가을이면, 파란 하늘과 탐스러운 열매들을 바라보며 보름달의 풍요로움을

지금은 회의(懷疑)할 때

연상해도 좋으련만, 농부들은 언제 갑자기 남태평양 어디쯤에서 발생한 제주를 뒤집어놓을 태풍이 걱정된다고도 한다. 또 이런 걱정과 무관한 것처럼 언제나 그랬지만 대선 정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의 반반으로 나뉘고 특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곤 한다. 문득 이런 현상이 거의 맹목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오싹할 정도로 두렵다. '시선(視線)'은 언제나 '특정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자신의 앞과 관련된 때는 '특정한 방식'만이 최상이거나 최선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정한 방식'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보는 방법이나 위치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사고과정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가치체계도 중요한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특정한 방식' 안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 인식한다는 뜻이다. 요즘처럼 다양한 매체에 의해 수많은 정보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하나 분석하며 그 가치를 진단하기는 쉽지가 않다. 우리는 이미 거의 고착화된 '어떤 체제'에 의해 그 정보들을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정한 방식'이란 바로 '어떤 체제'의 하위 개념이다. 이 현실이란 앵글(angle), 제주도의 문제란 프레임(frame)을 주고 보게 한다면 너무나 다양해서 그 경중을 따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앵글과 프레임 안의 것조차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머에 있는 것까지 보게 되기도 한다. 회의(懷疑)란, 철학에서 인식의 확실성을 보류하고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충분한 근거가 없어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우리는 기원전 소크라테스의 대화에서나 현대 철학의 거장들로부터 인식의 과정에 이르는 길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귀담양으로라도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쉽게 편벽(偏僻)돼 자신의 앞(어떤 체제에 의해 바라본 하나의 판단)에 맹목하며 대타(對他)를 핍박하게 되는가. 제주 사회도 대선 정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대신 이후 지방선거의 방향이 결정되고 지금 물망에 오른 후보는 물론이고 새로운 인물들도 등장해 도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많은 변수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제주 사회가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주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특정한 방식, 어떤 체제만을 맹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디더라도 회의하며 진단해 나가자.

사설

'갈등의 섬' 관리, 도정 반성이 우선이다

'평화의 섬' 제주가 '갈등의 섬'으로 치달아 도민사회 분열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은 지 오래다. 제2공항, 영리병원, 쓰레기처리시설, 해상풍력발전사업 등 지역사회 첨예한 갈등 사례들이 즐비한 현실이다. 행정은 갈등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전담 인력·부서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도정이 제2공항 건설과 영리병원 사례처럼 여론조사와 결과도 인정않은 행태로 갈등 관리보다 더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도가 현재 '갈등사업'으로 분류한 사업만 54개에 이른다. 갈등지수(300점 만점)로 200점을 넘어 이목을 끈 사업도 제2공항 개발, 동물과개발 비자림로확포장 등 여럿이다. '갈등사업'은 아니지만 미리내공원폐기물시설 도두동장레크리장 조성 등 갈등종인 사업도 많다. 어느 사회든 사람 모인 곳에 갈등은 존재한다. 한국 갈등수준이 OECD 30개국 중 세 번째로 높다는 뉴스도 최근 나왔다. 갈

추석물가 급등, 차례상 준비 부담스럽다

추석 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민들의 근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차례상을 준비해야 하는 가계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추석 제수용품 가격이 줄지어 오르면서 차례상 비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도내 재래시장의 물가동향 조사 결과 올해 차례상 제수용품 구입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7만 1100원이다. 작년(25만9700)보다 4.4% 뛰었다. 품목별로는 사과·배 등 과일류 6개 품목 구입에 작년 추석보다 23.8% 오른 8만 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고기와 계란 등 육류와 옥돔·동태포 등 해산물 7개 품목 구입비는 11만3800원으로 작년보다 3.8% 하락했다. 젓은 제주고사리 등 채소류 8가지 구입비는 작년보다 6.4% 내린 4만4200

열린마당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 동참해 주세요



현 수 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급식 경영 관리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냉장(냉동)실에 있는 식재료 중 하나라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가 보일 시,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행정지도 및 처분을 내린다. 이는 어린이집 식중독이 아직도 부모들의 마음을 겁게 물들이는 현 상황에서 응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시설 안전' 점검이다. 건축물의 이상 유무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 및 화재 사고 예방, 그리고 신속 대피와 안전교육까지 어린이집 안전관리 점검뿐 아니라, 요즘은 미세먼지 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 및 CCTV 등 많은 부모가 염려하는 부분도 비중 있게 점검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 늘고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어린이집 밖에 없다는 생각에 부모들은 '안전한 어린이집'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방역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이를 철저하게 지도·점검해야 하는 공무원들 간의 말이 어린 팽팽한 줄다리기는 많은 영유아의 안전한 울타리가 돼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튼튼한 울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뉴스-in

"원 전 지사 버린 것 인간 도리 아니다"

수혜받은 인사들 상대 캠프로 ○...국민의힘 대선 예비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수혜를 입었던 도내 인사들이 상대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눈길. 원 지사 시절에 차치단체장을 했던 한 인사는 다른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도내 사령탑으로 갔고 또 다른 수혜 인사는 여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동분서주. 원 전 지사의 측근은 "원 지사가 지사직을 던질때 기관장들도 같이 사표를 던지고 지사를 돕겠다고 나서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자신을 챙겨준 주군을 버리고 다른 대선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언급. 고대모기자

추석 앞뒤 수급안정 점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및 추석 명절이 앞두고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자 제주시가 7일 수급 안정화를 위한 도축상황 등 집중 점검. 이날 시는 최근 하루 도축물량이

소는 22두에서 40두, 돼지는 1869두에서 2500~3000두로 늘어나자 제주축산농협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 수급상황 점검과 함께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 안동우 시장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 이윤형기자 "성인지 감수성 제고 대책을" ○...제주여민회가 "제주도립미술관 성추행 가해자 작품 전시와 철거 논란"과 관련 7일 성명을 내고 "공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 제주여민회는 "도립미술관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성추행·성희롱 가해자의 작품을 전시한 불찰과 부적절한 민원 처리과정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여야 한다"고 언급. 이들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시 작품 작가 선정에 성인지적 관점의 좀 더 세밀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전선희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나라장씨 성월(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1년 9월 8일 남 권 강승인 아 들 강명조 며느리 김혜숙 명생 고주연 명수 양인남 명복 명복 명복 사 위 문영철 명부 이정현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대 勢 세 대! 결혼·부고·축하·광고·도내·최다·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미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0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포 732-5552

의료안내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756-2833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식품의학의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음압동굴계 거문오를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토지 급매 가격 1) 월드컵경기장 아래 대로변 865평 ★최저가30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3) 강정동 해안도로 40m 741평, ★평당 200만원★ 펜션 및 전원주택지 4) 강정해안도로 점 607평 ★360만원★ 카페 최고부 5) 강정동 해안도로 100m 753평, ★평당 73만원★ 전원주택지, 투자용 최고 6) 강정동 해안도로위 땅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호근동 범섬 부, 최고 전원주택 360평, ★평당 200만원★ 건축 바로 가능 010-2102-5424 / 010-6275-5200